

# 해방기 지성의 ‘상아탑’과 ‘토치카’

— 김동석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손 유 경\*\*

## 요약

이 글은 『해방전후사의 인식 1-6』(1979~1989)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방기 한국 지성의 역동성과 다층성을 본격적으로 고찰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쓰였다.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해방기 현실을 또다시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회수하는 중첩된 흑백 프레임에서 벗어나 ‘황폐한 공간성’이 아닌 ‘응축된 시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방기 지성을 새로이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해방기를 유일한 활동 시기로 삼았던 김동석(1913~?)의 글쓰기를 정독하고, 여기에 담긴 반전·반파시즘 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 그리고 평화적 공존의 꿈을 분석한다. 김동석이 해방기에 남긴 주요 시인·작가론과 문화론에는 호전적인 친일 모리배와 일제 파시즘의 잔재를 문화의 힘, 즉 ‘시탄(詩彈)’으로 무너뜨리자는 절실한 호소가 담겨 있다. 반전 평화주의에 대한 그의 일관된 믿음은 김동리 순수문학론의 비순수성이나 당대 자칭 애국자들의 눈먼 애국심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비판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김동석은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고타 강령 초안 비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를 막연하게나마 지식인 윤리의 지침으로 삼아, 지식인이란 모름지기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상아탑’을 거점 삼아 학문의 자율성과 대학 자치, 그리고 언론 자유 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닌 이러한 엄정함은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도 남한에 남아 부르주아 인간형 비판이라는 의제에 따라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는 학술적 실천을 감행하게 한다. 우리 문학사에서 김동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 연구조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1-KDA-1250006)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석은 월북 문인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남한 전체를 ‘토치카’화한 후 그곳에 남아 하려던 일을 무엇이었는지를 새삼 기억하는 일이다. 망명객보다는 국내혁명가가 더 애국자라는 믿음을 가졌던 김동석은 이승만 정권에 의한 좌익 탄압이 가일층 노골화하고 한반도에 점차 전운이 드리워지는 그 시점까지도 평화적 공존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김동석의 밀도 있는 사유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전개된 다종다양한 변혁 운동, 즉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이 다름 아닌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의 짧은 해방기에 매우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다. 김동석의 글쓰기는 해방기의 이러한 ‘응축된 시간성’을 추체험하게 하는 생생한 텍스트로 우리 지성사에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해방전후사의 인식』, 김동석, 해방기, 응축된 시간성, 지성, 반파시즘 사상, 반전 평화주의, 상아탑, 토치카, 월북, 공존

목차

1. 해방기의 응축된 시간성
2. 반파시즘 사상과 반전(反戰)의 상상력
  - (1) 원자탄에 맞서는 ‘시탄(詩彈)’
  - (2) 순수문학논쟁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들
3. ‘상아탑’이라는 거점과 지성의 최소 윤리
4. ‘토치카’에서 읽는 셰익스피어
5. 공존이라는 무너진 꿈

## 1. 해방기의 응축된 시간성

해방기 연구의 흐름을 살피다 보면 『해방전후사의 인식 1~6』(1979~1989, 이하 『해전사』)이라는 한국 학술사의 중요한 분수령을 지나치기 어렵다. 발간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판금 조치라는 1권의 운명이 암시하듯, 십여 년에 걸쳐 총 6권으로 완간된 『해전사』는 해방기에 관한 연구를

명실상부한 학술 운동으로 자리매김한 기념비적 저작이다. '1980년대 운동권의 필독서'라는 통념적 규정이 말해주는 것처럼 『해전사』의 주요 필자, 즉 강만길, 송건호, 박현채, 정해구, 김남식, 임종국, 임현영 등은 해방기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면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이론과 실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군정의 친일과 기용과 민족지도자들의 판단 착오 등을 비판하면서 민중이 주체가 된 민족 자주성 회복을 역설한 송건호와, '분단국가주의적 시각'을 벗어난 '통일민족주의적 시각'의 수립을 강조한 강만길, 그리고 대항 담론으로서의 민족경제론을 주창한 박현채 등은, 해방기 연구가 왜 박정화-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정권의 기원과 민낯을 폭로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몸소 입증했다.

『해전사』의 방대한 규모와 엄청난 과급력을 생각한다면 위의 서술은 피상적 조망에 불과할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해전사』를 정치적 진영 논리에 끼워 맞추려는 저널리즘적 평가는 『해전사』 '신화화'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점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접근법이다. 2006년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2』(머리말)에서, 총 6권의 『해전사』를 "현대사에 대한 좌파적 해석"으로 균질화한 박지향의 발언과, 『재인식』 출간 이후 '인식=좌파, 재인식=우파'라는 선명한 진영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다분히 소모적인 논쟁은, 『해전사』 다시 보기라는 중요한 작업을 오랜 기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긴다. 그런 저널리즘적 소란은, 마치 『재인식』이 『해전사』의 오류를 바로잡은 듯 보이게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해전사』의 필자들이 붙들고 씨름했던 문제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된 듯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해전사』 수록 글이 하나의 논점으로 일반화되기 어려운 것처럼, 『재인식』 역시 다층적으로 구성된 텍스트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해전사』가 '운동권의 바이블'로 신화화되고 이후 논의가 진영 다툼으로 비화(飛火)되는 바람에, 『해전사』의 내적 복잡성에 대한 조

명이나 그 학술적 성취와 한계에 관한 실질적 논의는 지금까지 본격화되지 못했다. 물론 『해전사』 집필의 큰 방향성, 이를테면 한길사 김인호 대표의 기획 의도와 그에 부응하는 대표 필진의 상징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1)</sup> 그러나 『해전사』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필자를 긴 시간 간격을 두고 불러 모아 기획한 책이라는 점에 새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전사』 필진 모두를 관류하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거나 거기 수록된 글들의 논점을 하나로 뭉뚱그리기는 실로 불가능하다. 요컨대 ‘운동권의 바이블’이나 ‘좌파의 교과서’라는 프레이밍은 『해전사』의 중층성을 간과한 안이한 시각의 소산이다.

여러 견해가 충돌하는 다성적 텍스트로 『해전사』를 ‘재인식’할 때 새로이 주목되는 글들이 적지 않지만 이를 모두 언급하는 것은 본고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에 관해서는 더 상술하지 않는다. 본고의 주안점은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해방기 현실을 또다시 좌파/우파 또는 진보/보수와 같은 이분법적 구도로 파악하는 중첩된 흑백 프레임에서 벗어나, 해방기 지성의 면모를 좀 더 입체적으로 고찰해 보는 데 있다.

해방기의 지식인에 대한 본고의 관심은 구체적으로 『해전사』 2권(1985)에 실린 임현영의 글 「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인식」에서 처음 짚든 것인데, 임현영은 임종국과 더불어 해방기 지식인과 문인에 관해 가장 많은 글을 쓴 『해전사』의 대표 필자 가운데 하나다.<sup>2)</sup> 그가 쓴 「해방직후 지

1) 김인호 대표의 각종 구술과 회고 작업은 지성사·학술사적으로 큰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해전사』의 위치를 기획자의 의도나 명망가의 위상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책의 전체 방향성과 공명하거나 그에 반발하기도 하는 개별 필자의 고민과 역량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의 기본적 문제의식이다. 『해전사』 자체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잡게 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수록된 글들을 일반화하거나 진영 논리로 손쉽게 환원하는 태도를 경계하면서 개별 텍스트의 연구사적 의미를 평가하는 작업은 긴요한 듯하다.

2) 1권 수록 글인 「해방 후 한국문학의 양상」은 1979년 10월 15일 출간된 『해전사』 1권이 10.26 사태 이후 내려진 계엄령에 따라 판매 금지되었다가 이후 신군부의 검열을 통과해 재출간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된다. 이 사건 이후 임현영은 「미군정기 좌우익 문학논쟁」(3권, 1987)과

식인의 민족현실 인식'은 앞서 언급한 『해전사』 자체의 비균질성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동시에, 좌우 대립이라는 연구 대상을 좌우 대립의 구도에 가두지 않는 하나의 방법론적 지평을 시사하는 중요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첫째, 임현영은 『해전사』를 구성하는 지배적 요소로 널리 이해되는 민중주체사관에 대한 반성을 요청하면서 해방기 지식인론을 전개한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8.15 이후 지식인들의 각종 이론과 주장은 비록 현실정치적 상황 때문에 진공화 내지 화석화된 채 밀폐된 박물관에 비공개로 사장되어 있으나 그 여러 쟁점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절실하며, 그 논의나 이론의 수준에서 오히려 오늘을 능가하는 부분도 있기에 충분히 발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는 민중주체사관에 의한 현대사의 조명이 새로운 이론이나 주장에 너무 열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과 아울러 이미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지식인들이 한번씩 다 거친 고뇌를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한 채 역사의 원점에서 방황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작업은 필요하다.<sup>3)</sup> (강조인용자. 이하 모든 강조는 인용자의 것임.)

위 인용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민중주체사관을 반성하자는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는 민중주체사관”에 입각해 “새로운 이론이나 주장”을 열렬히 생산해 내는 1980년대 지식인들에게 임현영이 성찰을 요구한 까닭은, 그들의 연구 대상인 해방기 지식인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한 세대 선배”이자 “오늘을 능가하는” 수준의 지식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창백한 지식인들의 민족적 이상”이 남북 어디에서도 계승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

「해방 이후 무장투쟁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4권, 1989)를 차례로 실었다.

3) 임현영, 「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인식」,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2013, 454면.

늘을 능가하는” 수준의,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한” 쟁점들이 녹아 있다. 해방기 지식인들이 ‘이미 한 번 다 겪었는지 모를 고민’을 자기 세대가 처음으로 혹은 유일하게 떠안은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임헌영은 민중주체사관을 좌파로 규정한 후 그 경계 바깥 우파의 자리에서 그것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해방기 지성)의 사유의 밀도가 그것을 다루는 연구자(1980년대 진보 진영)의 수준보다 더 높을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만일 『해전사』의 ‘재인식’이 필요하거나 가능하다면 그것은 『해전사』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로부터 도출할 수도 있다.<sup>4)</sup>

둘째, 「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인식」은 “지식인과 정치의 밀월 기간”인 해방기에도 “지식인 계층의 독자성”이 전적으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에서 서술된다. 해방기 지식인들이 좌우의 정치적 분열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3권에 실린 임헌영의 글 「미군정기 좌우의 문학논쟁」 역시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쓰였다. 그러나 해방기의 좌우 대립을 지성사 이해의 (참조점일 뿐) 블랙홀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본고의 관점에서 임헌영의 글이 중요한 것은, 그가 “좌익은 찬탁, 우익은 반탁 하는 식의 도식적 분류로는 진정한 지식인들의 입장이나, 주장, 자세를 알 수 없”다는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 지식인들이 특정 정파나 지도자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식인 계층의 독자적인 존립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좌우익 논쟁과 분열, 그리고 분단과 전쟁이라는 대립의 ‘결과’에 큰 비중을 두는 작업이 부딪치게 되는 난점 가운데 하나는 해방기를 형해화된 ‘공간’처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4) 물론 임헌영은 민족통일이라는 지상 과제를 상정하고 해방기 지식인의 사유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고가 초점화하려는 문제와는 다소 먼 거리에 있다.

일상적 삶의 원자료가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되어버린 해방공간에서 본질(의미)은 이데올로기라는 순수한 관념영역 속으로 도피해버렸다. 이처럼 해방공간은 신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들판이었다. (· · ·) 무엇보다도 이 들판에는 시간개념이 스며들지 않는다. 시간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도 똑바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 · ·)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해방공간은 밀폐된 공간이며 정지된 시간이다.<sup>5)</sup>

김윤식에 따르면 “도둑같이 왔”다가 간 해방<sup>6)</sup>은 “신이 한순간 머물렀다가 떠나버린” “황폐한 모습”이었고 그것이 결국 이 공간의 역사철학적 상태였다. 그가 ‘해방공간’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근거는 여기에 있었다. 「해방공간의 문학」에서 김윤식은 직접 각주까지 달면서 “이 용어[‘해방공간-인용재는 필자가 일찍부터 사용한 바 있(『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76)”<sup>7)</sup>”라고 밝혔는데, 1945년 8월 15일부터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일까지 적어도 3년 동안 남한(또는 한반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이 해방기를 관찰하는 그의 기본적 시각이었다. ‘해방기’가 아닌 ‘해방공간’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중요했다. 해방기의 극심한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일상적 삶과 의미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한반도를 “시간이 정지”된 “밀폐된 공간”으로 황폐화시켰다는 김윤식의 시각은 널리 받아들여져 ‘해방공간’이라는 용어는 이후 국내외 관련 연구사, 특히 해방기 문학 연구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통용되었다.

해방기 문학을 다루는 최근 논저들을 일별해 보면, 해방 전후 이념의 각축 양상과 그 귀결을 초점화해 온 기왕의 시도에서 벗어나, 당시의 극심한 경제난이나 사회적 혼란, 엄청난 규모의 인구 이동, 그리고 혼란스럽고 역동적인 언어 상황 및 학술 장의 재편 양상 등을 조명하는 데로 연

5)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 『해방전후사의 인식』 2, 546면.

6)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는 함석헌의 표현(『뜻으로 본 한국역사-함석헌전집 1』, 한길사, 1965/1993, 268면)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7)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 앞의 책, 548면.

구의 시야가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이 그리는 해방기는 ‘황폐해진 들판’이나 ‘정지된 시간성’과는 거리가 먼 역동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해방기 지식인의 사유와 실천을 ‘발굴’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해방기를 거의 유일한 활동 시기로 삼았던 김동석(1913 ~ ?)의 글쓰기에 주목해 본다. 지식인들은 해방기를 진정 시간의 흐름이 멈춘 진공 상태의 ‘밀폐된 공간’으로 경험했을까? 오히려 그들이 겪은 것은 여러 시간대가 중첩되고 압축된 강렬한 ‘응축의 시간성’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김동석이라는 문제적 지식인의 글쓰기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임헌영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작업이 『해전사』의 필진, 특히 임헌영이나 김윤식이 “한번씩 다 거친 고뇌”를 반복하거나 그로부터 퇴행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김동석에 관한 초창기 연구로는 김윤식, 임헌영, 신형기 등의 작업이 대표적이다. 김동석에 관한 김윤식의 관심은 『한국현대문학사』(일지사, 1976)에 실린 짧은 글 「비유와 리듬」 이후 여러 논저에서 산견되는데, 김동석 비평의 특질을 “교양주의” 혹은 “기능주의”<sup>9)</sup>라 일컬은 데서 드러나듯 그가 보는 김동석은 “근본적 터전이 없”는 “뿌리 없는 계층의 지식인”에 지나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김동석이 김동리와 소위 ‘순수문학논쟁’을 벌일 당시 “정작 문학가동맹의 중심분자들은 거의 상대를 해주지 않”<sup>10)</sup>었다고 한 김윤식의 신랄한 평가는, 사실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태의 일면을 과도하게 부각한 것으로도 보인다. 신형기는 순수문학논쟁이 “김동석의 경박성으로 말미암아”<sup>11)</sup> 피상적 수준을 면치 못했

8)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조은정,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 국민'의 형성」,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8; 장지영, 「해방기 학술의 지정학」, 성균관대 박사논문, 2020; 임세화, 「탈식민화와 소유 관념의 재현: 해방기 문학의 언어, 경제, 도덕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2023; 김윤진, 「해방기 문학과 언어공동체의 구상」, 서울대 박사논문, 2024.

9) 김윤식, 「해방공간 비평의 유형학」, 『한국현대문학비평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97면.

10)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 앞의 책, 525면.

다고 비판했는데, 인상비평에 가까운 이러한 판단이 논쟁 상대방이었던 김동리의 입장과 매우 닮아있다는 점은 꽤 문제적이다.<sup>12)</sup> 김동석에 관한 초창기 이해는 이처럼 김동리와 순수문학논쟁을 벌인 해방기 신세대 좌익, 혹은 다소 경박하지만 예리한 데가 있는 영문학자이자 문학비평가라는 해석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김동석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이현식과 이회환의 실증적 연구에 힘입어 본격 궤도에 올라섰고<sup>13)</sup> 김옥동과 유종호 등 영문학 연구자들도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 김동석의 비평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글을 남긴 바 있다.<sup>14)</sup>

김동석은 해방기를 거의 유일한 활동 시기로 삼은 드문 지식인이다. 그는 미군정의 좌익 탄압이 본격화하는 1947년 주요 좌익 문인들이 월북하고 19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남한에 남아 계속 읽고 썼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해방을 전후한 시기 '거리'의 풍경과 그 문학적 재현에 관한 논의는 풍부히 축적되어 왔으나<sup>15)</sup> 해방기의 '서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sup>16)</sup> 이에 본고는 일제 말기에

11) 신형기, 「해방 직후 문학비평의 흐름」, 신형기 엮음, 『해방 3년의 비평문학』, 도서출판 세계, 1988, 20면.

12) 김동리는 김동석의 「순수의 정체」를 비판하는 글 「생활과 문학의 핵심-김동석군의 본질에 관하여」에서 자신은 김동석에 관해 “별반 흥미도 없”는데 자꾸 그가 “육설을 걸어” 온다며 글을 시작한다. 이어 김동리는 김동석의 작가론이 매우 예리하고 날카로워 “여간 경쾌하지 않”으나 읽고 나면 별반 남는 게 없다고 혹평한다. 위의 책, 361~365면. ‘경박함’이라는 신형기의 표현은 그런 점에서 김동리의 김동석관을 그대로 상기시킨다.

13) 이현식, 「역사 앞에 순수했던 양심적 지식인의 삶과 문학: 김동석론」, 『황해문화』, 1994; 이현식, 「김동석 연구 2-순수문학으로부터 민족문학으로의 도정」, 『인천학연구』 2-1, 2003; 이회환, 『김동석과 해방기의 문학』, 역락, 2007.

14) 유종호, 「김동석과 토마스 만」, 『내 마음의 땅명지』, 문학동네, 2004; 김옥동, 「김동석과 사회주의 비평」, 『비평의 변증법』, 이숲, 2022.

15) 이봉범, 「해방공간의 문화사-일상문화의 실연과 그 의미」,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이해령, 「해방(기):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2009 등이 대표적이다.

16) 줄고, 「가두와 서재: 팔봉과 회월의 해방 전후」(『인문논총』 78-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다.

은거하다가 해방기에만 두 권의 비평집을 상재한 김동석을 통해 해방기에 ‘읽고 쓴다는 사건’의 의미를 고찰하려 한다. 김동석은 친일파와 보수 우익 인사 비판의 최전선에서 활동했기에 선명한 좌파 지식인으로 보통 분류되었다. 중요한 것은 식민지시기 일본을 경유해 마르크스주의를 접했던 선배 세대와 다르게, 김동석은 일본이라는 매개 없이 해방기에 ‘처음으로’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내세운 신세대 지식인으로, 좌우익 문인과 엘리트를 고르게 비판했다는 사실이다. 해방기 지식인들의 언어는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만, 그것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다중성을 띤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 특성은 좌우라는 범주 안에서 적절히 포착되기 어렵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김동석의 글을 정독함으로써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괄호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순과 갈등을 좀 더 현실적이며 심지어 시의적인 지금 이곳의 문제로 재사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동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방기 지성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반파시즘 사상과 반전(反戰)의 상상력

### 1) 원자탄에 맞서는 ‘시탄(詩彈)’

이회환은 김동석의 해방기를 문화적 투쟁기(1945.8.15.~1946.7), 정치적 투쟁기(1946.7~1948.8), 분단·월북기(1948.8.~?)의 3기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다.<sup>17)</sup> 5년 남짓한 기간을 세 시기로 나누는 것이 자칫 자의적 구분

---

17) 1기는 『상아탑』 창간부터 종간까지의 시기로, 문화인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남로당 외곽 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民戰)에 가담했던 시기와 대략 일치한다. 2기는 미군정의 좌익 탄압이 정점에 이르고 남북한 단독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기간으로, 김동석은 이때 조선문학가

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해방기의 주요 타임라인을 상기해 보면 이 짧은 시간 동안 남과 북이 얼마나 급격하고 숨 가쁜 변화를 겪었는지 금세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기 구분은 가능하고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성마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시기 구분과 관련해 본고가 좀 더 유의해 고찰하려는 문제는 평화에 관한 김동석의 사유와 신념이다. 이 문제에 주목하면 그가 열정적으로 개진했던 반파시즘 민주주의론이나 순수문학 비판론이 기실 동일한 원천에서 분기해 나온 사유의 가닥들을 알 수 있다. 해방기 내내 김동석을 사로잡았던 가장 큰 고민은, 원자폭탄의 힘으로 해방된 조선에 또다시 원자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에게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였고, 결코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믿음은 5년의 시간을 관류하면서 매 국면 조금씩 변주되는 양상을 보인다.

임종명의 연구에 따르면 박헌영을 비롯한 해방기 좌익 엘리트들 사이에는 민주주의 연합국에 의한 조선 해방이라는 해방의 국제성이 공유되고 있었고 이들은 조선 해방을 파시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간주했다.<sup>18)</sup> 코민테른 7차 대회(1935)의 반파쇼 인민전선 전술을 참조한 좌익 진영의 반파쇼 평화운동은 일본을 파시즘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시즘/반파시즘 문제를 조선 독립이라는 탈식민적 의제로 의미화했다. 반전(反戰)반(反)파쇼평화옹호투쟁위원회의 활동이나 국제 반전 데이 기념행사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여실히 드러난다. 좌익 진영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협력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을 민족의 독립을 위협하는 “파쇼 잔재”로 간주한다. 따라서 좌익이 벌인 반파시즘 평화 운동에서는 “전쟁 자체의 문

동맹에 가담하여 각종 시사비평과 정치적 활동에 골몰했다. 『예술과 생활』(1948)도 이 시기에 출간된다. 3기는 남북한 단독정권 수립 이후 남한에서 민전(民戰)이나 조선문학가동맹이 사라진 시기로 비평집 『부르주아의 인간상』(1949)을 상재한 것을 마지막으로 김동석은 월북한다. 이희환, 앞의 책, 48-54면.

18) 임종명, 「종전/해방 직후 남조선과 반파쇼 민주주의, 그리고 인민」, 『역사비평』 146, 역사문제연구소, 2024, 109-111면.

제성”이 “국가 건설이라는 탈식민적 의제의 전면화 속에서 소거”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과소 잔재 소탕이 전경화(前景化)된 반면 ‘반전 평화’는 후경화되었던 것이다.<sup>19)</sup> 심지어 이후 남한에서는 반제국주의 전쟁 경험 이 상찬(賞讚)되거나 전쟁 경험자들 사이에서도 “전쟁의 문제성이 민족주의적 의제에 의해 소거”<sup>20)</sup>되는 양상을 보인다.

해방 후 김동석은 자신이 주재하는 잡지 『상아탑』을 통해 반전 평화사상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김동석이 반과시즘 평화운동이라는 교집합을 좌익과 공유하면서도 꽤 오랫동안 일관되게 반전 의식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sup>21)</sup> 『상아탑』이 “전쟁을 공격하는 토치카”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전쟁과 평화」는 이런 특징이 고스란히 담긴 중요한 텍스트다. 이 글에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의 파시스트들이 무력을 자랑하며 민주주의 진영을 공격했을 때 그 위세에 눈이 멀어 득세했던 “조선의 친일파와 민족반역자”가 여전히 “이 땅에서 반동적 역할”을 하면서 “미소총돌”을 바라고 있음을 개탄한다.

그런데 그때 그 반동적 세력이 아직도 이 땅에서 반동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된 노릇이냐. 하물며 그들이 하늘같이 믿고 바라는 것이 미소총돌이라는 것을 알고도 잠자코 있을 수는 없다. **원자폭탄을 사용해서라고 38도선을 없애주, 하는 것이 그들의 입버릇이** 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 하여튼 **전쟁은 인류의 적**이요 특히 약소민족에게는 지긋지긋한 원수다. (...) 문화인이여, **전쟁을 저주하고 평화를 찬미하자**. 조선 민족은 오랜 문화를 가졌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살리기

19) 임종명, 「종전/해방 직후 남조선의 반전 반과소 평화운동」, 『기억과 전망』 4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3, 43면.

20) 위의 글, 41면.

21) 김동석의 이러한 특징이 그가 〈남북회담지지 108인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 소위 남북협상파 문인들을 지지했던 상황과 관련되는지 추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아이디어는 김재용의 『남북협상파 문인들』(역사공간, 2024)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다.

위하여서도 문화의 적인 전쟁과 싸우자. 그리고 문화의 온상인 평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자. 『상아탑』은 전쟁을 공격하는 토치카이며 문화의 씨를 뿌리는 온상이 되고자 한다.<sup>22)</sup> (강조-인용자. 이하 모든 강조는 인용자의 것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면서 해방을 맞이한 조선에 다시금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는 김동석의 인식은 당대 여러 매체에서 공유되던 사안이다.<sup>23)</sup> 원자탄에 대한 공포와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 어두운 예감을 당대 지식인들과 두루 공유한 가운데 김동석이 특히 주목한 것은 ‘파시즘 잔재’인 친일파가 곧 ‘전범’이라는 사실이었다. 그의 염원은 무력을 불사한 통일이 아니라 일제 파시즘 세력이 일으킨 전쟁에 협력했던 ‘반동적 세력’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이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쓴 「민족의 자유」에서도 그는 파시즘 잔재 세력에게 공격의 칼날을 겨눈다. “일제에 기대서 재미를 본 나쁜 버릇”을 못 버리고 이제는 “미군정을 이용하여서 그 세력의 확대강화를 꾀하”<sup>24)</sup>려는 친일파와 모리배의 행태를 규탄하면서 김동석은 이들을 세계평화를 가로막는 자들로 점찍는다. 미국의 자유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 모두가 반파시즘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거대한 세계사적 조류를 형성한다고 믿고,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만 조선이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조선 땅을 탱크가 석권하고 원자폭탄이 파괴할 것을 상상만 함도 끔찍 끔찍한 일이 아닌가.”<sup>25)</sup>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죽었으되 히로히토와 프랑코는 여전히 살아” 있으니 “파시즘

22) 김동석, 「전쟁과 평화」, 『상아탑』 5, 1946.4.1.: 이희환 엮음, 『김동석 비평 선집』, 현대문학, 2010, 246면. 이하 이 책을 인용할 경우 『선집』으로 표기한다.

23) 이에 관해서는 공임순의 「원자탄의 매개된 세계상과 재지역화의 균열들: 종전과 전후, 한반도 해방(자유)의 조건들」(『서강인문논총』 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을 참고할 것.

24) 김동석, 「민족의 자유」, 『신천지』, 1948.8: 『선집』, 270면.

25) 위의 글, 271면.

이 인류에게 끼친 녹과 곁”은 그리 “쉽게 소탕되지는 않을 것”<sup>26)</sup>이라 예견 하기도 했다. “봉건 잔재와 일제 유독을 소탕하고 인민적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일단 “막부 삼상결정에 의하여 세계가 공인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김동석은 주장했다. “이 첫걸음을 내디디지 못한다면 삼팔통일선이 영구화되고 조선이 둘로 갈라져 한쪽은 외국의 식민지가 되든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금수강산이 시산혈하(屍山血河)로 변하거나** 할 것이다.”<sup>27)</sup>

이처럼 김동석에게도 파시즘/반파시즘 문제는 친일과 적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친일과 비난의 주요 근거가 그들의 ‘반민족성’보다는 ‘호전성’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양반이나 지주, 그리고 토착 부르주아지로 이루어진 친일 세력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를 몰심 양면으로 지원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얻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과 결탁하여 그렇게 축적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쟁이라도 불사할 듯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김동석의 판단이었다.

그가 ‘상아탑’에서 하려던 일은 친일 모리배와 파시즘의 잔재가 남긴 이러한 ‘호전성’을 문화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평화는 상아탑으로 도피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아탑을 토치카로 전환하는 힘, 원자탄에 맞서 시탄(詩彈)을 쏘는 행위,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로의 비약을 통해 가능하다고 그는 믿었다. 김동석이 해방기에 남긴 주목할 만한 시인·작가론에는 반파시즘 사상과 반전 평화주의에 관한 밀도 있는 사유가 담겨 있어 특기할 만하다.<sup>28)</sup> 일제 말기를 “조선문단 전체가 전쟁에게 압도당

26) 김동석, 「민족의 중-『설정식 시집』을 읽고, 『중앙신문』, 1947.4.24.: 『선집』, 205면.

27) 김동석, 「관념적 진로-최재희 저 『우리 민족의 갈 길』을 읽고, 『중앙신문』, 1947.12.8.: 『선집』, 321면.

28) 김효신은 「한국 근대 좌익 비평문학과 이탈리아 파시즘」(『이탈리아어문학』 22,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7)에서 김동석이 이탈리아 문학과 문화에 조예가 깊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의 반파시즘적 사유에 이탈리아 파시즘 관련 논의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핀 바 있다. 김동석의 반파시즘적 사유 자체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된 논문이라기보다는 비교문화적 관점

했”<sup>29)</sup>던 시기로 인식하는 그는 해방기 문화의 온상인 상아탑을 피난처가 아니라 “시탄(詩彈)을 내쏘는 토치카”<sup>30)</sup>로 만들 것을 주문한다. 이어 정지용에게는 인민의 나라에도 시는 존재하니, 꼭 그런 시를 써달라고 당부한다. 「탁류의 음악-오장환론」은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히토 같은 파시스트들이 역사의 물을 흐려놓았다는 진단으로 시작한다. 이런 탁류의 시대에 “원자폭탄을 가지고 제3차대전을 일으켜서 가뜩이나 흐린 물을 더 휘저어 보려고 호시탐탐한 무리들이 있으니 걱정”<sup>31)</sup>이라면서 역사라는 탁류에 기꺼이 온몸을 담가 온 오장환은 분명 걸작을 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금단의 과실-김기림론」에서는 시와 과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김기림을 비판한다. 미소영의 원자폭탄 외교가 한창인데 마치 전쟁이 끝난 듯 한가로운 소리를 하는 것은 “달걀로써 원자폭탄과 싸우자는 격”<sup>32)</sup> 아니냐는 것이 그 비판의 요지다. 「비약하는 작가-안희남론」에서는 10월 인민전쟁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역사의 폭풍 속에 뛰어든 작가”<sup>33)</sup>로 안희남을 고평한다. 모스크바 삼상결정이 세계평화의 유일한 길이며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이 혜택을 입”<sup>34)</sup>는 것은 결국 조선의 작가임을 강조한다. 이 평화의 길에서 “민주주의적 독립”이 최종 목표로 제시된다. 「위선자의 문학-이광수론」은 상당히 공들여 이광수 문학의 저열함을 파헤친 글인데 긴 논의 가운데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 통일정권을 세우려 소미공동위원회에 모인 정치가들”<sup>35)</sup>에 관해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띈다.

해방기 좌익의 반파시즘 운동은 임종명의 지적대로 반파시즘 ‘반전평

에서 김동석 비평과 이탈리아 파시즘 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한 글이다.

29) 김동석, 「예술과 생활-이태준론」, 『상아탑』 1-2, 1945.12.10, 17: 『선집』, 25면.

30) 김동석, 「시를 위한 사-정지용론」, 『상아탑』 5, 1946.4.1: 『선집』, 44면.

31) 김동석, 「탁류의 음악-오장환론」, 『민성』, 1946.5-6: 『선집』, 57면.

32) 김동석, 「금단의 과실-김기림론」, 『신문학』, 1946.8: 『선집』, 70면.

33) 김동석, 「비약하는 작가-안희남론」, 『우리문학』, 1948.4: 『선집』, 119면.

34) 위의 글, 120면.

35) 김동석, 「위선자의 문학-이광수론」, 『국제신문』, 1948.10.16.~26: 『선집』, 150면.

화' 운동으로 가기보다 반과시즘 '민족통일' 운동으로 강하게 유입되었고, 김동석의 반과시즘 평화 사상 역시 이 자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김동석의 이러한 성취와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전 평화사상의 꿩인 맥을 다시 이어보는 일일지 모른다. 페미니스트 평화학자 정희진은 리영희를 가리켜 "해방 이후 한국이 낳은 첫 번째 평화학자"<sup>36)</sup>라고 불렀지만 어쩌면 이 문장은 수정되어야 할지 모른다.<sup>37)</sup>

## 2) 순수문학논쟁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들

이러한 맥락에서 '순수문학논쟁'으로 알려진 김동석과 김동리의 논전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동석의 김광균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자. 그 글에서 김동석은 김광균이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난 하면서 "인간성을 몰각한 문학"은 진정한 문학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는다. 민족주의자도 민주주의자도 "달과 구름의 시인"도 아닌 김광균은 역사와 유리된 채 부유하며 막연한 인간성 타령만 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김광균의 현실 인식이 역사와 유리되었다고 본 이유는, 모든 것은 국가 속에 있고 국가 밖에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시스트 원흉의 정치관"이 엄연히 판치고 있는 현실에 그가 눈감았기 때문이다. "과시즘이 주는 공포"가 "아직도 이 땅에 그 검은 그림자를 끌고 있"<sup>38)</sup>는데 한가하게 개성을 부르짖을 수는 없다. 이러한 안이한 태도야말로 민족문학과 민족주의 문학을 구별하지 못하고 민족주의 문학이 과시즘 문학으로 변태할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비판적 지성으로

36) 정희진, 「정박하지 않는 사상가의 삶과 언어」, 『창작과비평』, 2005 가을, 367면.

37) 리영희의 반전 평화사상에 관해서는 서보혁의 「리영희의 반전반핵 평화사상」(『통일과 평화』 9권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을 참고할 것.

38) 김동석, 「시인의 위기-김광균론」, 『문화일보』 1947.3.30.~4.5.: 『선집』, 76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광수의 '황도문학'도, 청년문학가협회의 '순수문학'도 민족문학일 수 없다면서 김동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족문학이란 민족주의 문학인가? 민족주의 문학이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서반아에서만 파시즘 문학이 되고 조선에서는 민주주의 문학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은 바보의 우론이 아니면 반동의 간론(간론)일 것이다.<sup>39)</sup>

따라서 순수문학논쟁으로 널리 알려진 김동석의 김동리론은 김동석-김동리의 이항 구도로 충분히 포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동리론을 쓴 김동석의 목표는 김동리 문학관 자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있지 않고 김동리 문학관을 숨 쉬게 하는 '비지성'적 요소들의 정치적 위험성을 일깨우는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작가 자신이 의식했건 못했건”<sup>40)</sup> “몽환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sup>41)</sup> 김동리의 세계관과 그에 기초한 ‘순수주의’는 결국 “독일의 나치스 문학자, 일본, 이태리의 전범문학자들이 전후 자기들의 정체를 캠프라치(camouflage)하기 위하여 이용”한 위장술이었을 따름이라고 김동석은 강조했다. 이러한 “순수문학의 비순수성”을 파헤치는 작업이 김동석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민족정신이 기본이 되는 민족문학”<sup>42)</sup>에서 순수문학의 길을 찾은 김동리는 “순수문학의 정신적 거점이 되는 제3 휴머니즘”<sup>43)</sup>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결함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일방, 맑시즘 체계의 획일적 공식적 메카니즘을 지양”<sup>44)</sup>하는 데서 확립된다고 주장한다. 요약건대 김동

39) 위의 글, 77면.

40) 김동석, 「순수의 정체-김동리론」, 『신천지』, 1947.12: 『선집』, 94면.

41) 위의 글, 97면

42)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 『서울신문』, 1946.9.15: 신형기, 앞의 책, 205면.

43) 김동리, 「순수문학과 제3세계관」, 『대조』, 1947.8: 신형기, 앞의 책, 343면.

44) 김건우, 「김동리의 해방기 평론과 교토학과 철학」, 『민족문학사연구』 37, 민족문학사학회,

리 순수문학론의 요체는 민족정신, 휴머니즘, 반자본주의, 반팍시즘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조국애와 민족혼을 말하면서 반자본주의와 반볼셰비즘을 동시에 언급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는 파시스트들뿐”<sup>45)</sup> 이었다고 지적한 김건우의 논문은 매우 시사적이다. “김동리는 자신의 의도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파시즘 철학의 논리를 무기로 해방기 좌익과의 논쟁을 벌였”<sup>46)</sup>다고 판단한 김건우에 따르면 김동리를 “대한민국의 이념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각인”<sup>47)</sup>시킨 것은 바로 그가 “해방기 김동석·김병규와 별인 ‘사투’에 가까운 논전”이었다. 김동리가 이들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일련의 비평문은 일본 교토학파의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는 일본 철학자의 글을 의식적으로 인용하지 않은 것이 한국 지식계의 풍토였기에 김동리 또한 자신의 그런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sup>48)</sup> 1930년대 니시다 기타로에서 시작된 교토학파 철학에 심취하였던 김동리는 그때부터 이미 유물론 철학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언급을 반복한다. 중요한 것은 “명백히 일본적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였던 “근대초극론의 자본주의 비판” 논의가 해방기 김동리의 ‘제3 세계관’ 사이에는 “일정한 논리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교토학파의 개조(開祖) 니시다 기타로의 사상이 갖는 특징, 즉 “국가주의적 요소에 신비주의가 덧붙여 강화”된 니시다 기타로의 철학은 “파시즘 철학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다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곧 “김동리의 위험성”<sup>49)</sup>이기도 했다.

김동석은 해방 직후부터 눈먼 애국심과 국수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sup>50)</sup> 원칙적으로는 한자폐지론에 동의하면서도 민족의 현실에 기

2008, 347면.

45) 위의 글, 292면.

46) 위의 글, 272면.

47) 위의 글, 273면.

48) 위의 글, 277면.

49) 위의 글, 291면.

초하지 않는 한자폐지론은 “시대에 역행하는 국수주의적 과오”를 범할지 모른다고 경고한 「국수주의를 경계하라」(신조선보, 1945.12.21.)도 파시즘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새삼 주목되며, 자칭 애국자들이 어떻게 민족을 분열시키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한 「애국심」 역시 오늘의 시대적 감각에도 호소력을 지닌다.

새무열 존슨은 “애국심은 악당의 최후 피난처라.” 간파했지만 히틀러, 히로히토, 무솔리니의 무리들이 이용한 것은 병기창보다도 실로 이 애국심이었던 것이다. 애국심이란 총칼보다도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반역자들은 언제나 애국심을 악용하여 정권을 획득했었다. *사랑은 눈먼 것이기 때문에 역용(逆用)을 당하기 쉬운 것이다.*<sup>51)</sup>

‘살아남은’ 김동리와 조연현의 관점은 문학사에서조차 살아남아, ‘사라진’ 김동석을 인신공격에 능한 재기 넘치는 경박한 문사로 각인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윤식은 월북한 카프 출신 문인들이 “김동석을 상대해 주지도 않았”다고 했으나 따지고 보면 ‘떠난’ 그들과 ‘남은’ 김동석 사이에는 교감도 관심도 없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지 모른다.<sup>52)</sup>

김동석이 김동리의 세계관을 문제 삼으면서도 그 공격 범위를 ‘순수문학론’에 한정하고 그 세계관의 기저에 깔린 파시즘적 철학 자체로 확산(擴戰)하지 않은 데에는 문단의 라이벌이었던 동갑내기 김동리에 대한 그

50) 해방 직후 결성된 〈문학건설본부〉 기관지에 실린 임화의 글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문화건설』 창간호, 1945.11)를 비롯한 좌익 문인 대부분의 글에서 국수주의 비판은 공유된다. 〈문학건설본부〉와 〈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이 통합하여 결성된 〈문학가동맹〉에서도 전통 만능과 배외주의로 나타나는 국수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중심 문제로 거론된다.

51) 김동석, 「애국심」, 『상아탑』 7, 1946.6.25.: 『선집』, 251면.

52) 김동석이 1948년 『서울 타임즈』 기자 자격으로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그를 남북협상파로 부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재용의 논의(앞의 책, 2024)가 중요한 참조가 된다.

의 존중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sup>53)</sup> 결정적으로 김동리는 친일 행적을 남기지 않았다. 같은 글에서 김동석이 박영희를 비난할 때의 날 선 어조와 비교해 보면 김동리에 대해서는 얼마간 자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읽는 ‘순수문학논쟁’에는 김동석이 간파했으나 차마 발설하지 않은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이 숨어 있는 듯하다.

### 3. ‘상아탑’이라는 거점과 지성의 최소 윤리

잡지 『상아탑』 종간 이후 김동석이 사용하는 ‘상아탑’이라는 용어는 다소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그가 한결같이 경계한 것은 “상아탑을 정치의 무대로 알고 버티고 있는 [지식인의-인용자 끝]<sup>54)</sup>이었음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지식인은 때로 상아탑으로 도피할 수도 있고 상아탑을 박차고 나와야 할 때도 있다. 김동석은 해방기라는 역사적 특수성이 지식인이나 문인의 그러한 비약과 변신을 가능케 했으며 심지어 그런 변화를 거스르기가 더 어려운 것이 해방기 현실이라고 봤다. 상아탑의 지식인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자의식 과잉으로 갈팡질팡하는 것, 이익에 눈멀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눈치 보는 것, 상아탑에서는 정치를 하려 하고 정치관에서는 군자연하려는 이중성을 보일 때다. 지식을 정의로운 데 쓸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간악한 무리에게 빌려<sup>55)</sup>주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최소 윤리를 그는 지식인의 양심으로 간주했다.

일찍이 김윤식은 “기능에 응해서 노동하는 것이 가장 양심적”이라고 한

---

53) 김동리의 비평집 『문학과 인간』(1948)이 발간된 후 성대한 출판 기념회가 열렸고, 김동석의 비평집 『부르주아의 인간상』(1949)은 “날개 돋혀 팔려나가는 천하일품”이었다는 소식을 알린 당대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송희복은 두 인물의 인기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송희복,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234면.

54) 김동석, 「학원의 자유」, 『상아탑』 2, 1945.12.17.; 『선집』, 237면.

55) 김동석, 「공맹의 근로관-지식계급론 단편」, 『신천지』, 1947.2; 『선집』, 301면.

김동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가 말하는 생활이란 “조연현이 말하는 ‘구경적 삶’과 구별되는 “기능적 삶”<sup>56)</sup>이라 규정한 바 있다. “‘상아탑’이야말로 ‘희고 차다’든가 ‘조선의 이성을 상징한다’ 따위의 발언을 김동석이 일삼은 것은 문학을 기능으로 바라본 데서 나왔”(강조 인용자)<sup>57)</sup>다고도 했다.

그런데 김동석의 글에는 이와 유사한 문장이 몇 차례 더 눈에 띄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름 아닌 마르크스의 「고타 강령 초안 비판」(1875)의 일부분을 그가 다시 쓰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기능에 응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몇 군데를 인용해 보자.

① 거듭 말하거니와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자본론』에 이른바 ‘자유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기능에 응해서 노동하고 필요에 응해서 소비하는” 민족이 되게스리 만들어 놓는다면 그대들처럼 신 통한 기능이 없는 양반들도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sup>58)</sup>

② 문학가동맹은 민족만 생각하다가 문학을 소홀히 한 느낌이 없지 않다. 문학가는 문학을 통하여 민족을 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능에 응해서 노동’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시인은 시로 소설가는 소설로 평론가는 평론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소탕하고 봉건주의를 청산하고 국수주의를 배격해야 할 것이다.<sup>59)</sup>

③ 아직까지 내가 일구월심 같고 닭은 기능은 문학이다. 기능에 응해서 노동하는 것이 가장 양심적이라면 나는 상아탑에서 글을 쓰는 것이 나로선 제일 좋은 일일 것이다.<sup>60)</sup>

56) 김윤식, 「해방공간 비평의 유형학」, 앞의 책, 92면.

57) 위의 책, 93면.

58) 김동석, 「기독교의 정신」, 『상아탑』 7, 1946.6.25.: 『선집』, 256면.

59) 김동석, 「비판의 비판-청년문학가에게 주는 글」, 『예술과 생활』: 『선집』, 215면.

60) 김동석, 「평론집 『예술과 생활』을 내놓으며」, 『예술과 생활』, 박문출판사, 1947: 『선집』, 467면.

첫 번째 인용문에서 김동석은 “기능에 응해서 노동하고 필요에 응해서 소비하는” 것이 곧 ‘하느님의 나라’이자 ‘자유의 왕국’이라 말한다. 따로 출처가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바로 윗줄에서 『자본론』을 언급하면서 직접 인용 부호(“ ”)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마르크스의 「고타 강령 초안 비판」에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 즉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61)를 다시 쓰기한 것임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고타 강령 초안 비판」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 공정한 분배의 의미를 되물으며 이렇게 설명한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즉 “그 모태인 낮은 사회의 모반이 모든 면에서, 즉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아직도 들러붙어 있는 공산주의 사회”의 경우 “생산자의 권리는 그의 노동 제공에 비례”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암묵적으로 개인의 불평등한 소질”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평등”하다. 일한 만큼 돌려 받는다는 말은 능력에 따른 분배의 불평등을 함축한다. 그러나 개인의 전면적 발전과 생산력의 성장, 그리고 조합적 부의 증대를 통해 부르주아적 권리의 한계가 극복된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에 이르면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공산주의의 이상은 ‘조합적 부의 흘러넘침’이라는 조건 위에서 실현 가능하다. “이런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62)

따라서 “기능에 응해서 노동하고 필요에 응해서 소비”하는 것은 양심적 일 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롭다는 김동석의 반복된 진술은, 그가 ‘기능주의’ 차임을 입증한다기보다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으로서 그가 지닌 사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분배 문제라는 사회과학적 맥락을 벗어나 마르크스의 문장을 자의적으로 고쳐 쓴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가 ‘능력

61) 칼 맑스, 「고타 강령 초안 비판」(1875), 김세균 감수, 최인호 외 옮김,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박종철출판사, 2007, 377면.

62) 위의 책, 375-377면.

(능기능)에 따라 일한다'는 신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데 마르크스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전유했다는 점은 중요하다.<sup>63)</sup> 김동석이 해방기 내내 '상아탑'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자신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상아탑』 창간호에서 김동석은 혁명적이지도 않고 반동적이지도 않은 대부분의 “양심적인 인텔리”가 “상업주의가 단말마의 발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아탑을 지키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경제적인 협위와 정치적인 압박”<sup>64)</sup>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식인이 상아탑을 지키고 키워야 할 이유는 그것이 “예술의 전당이요 과학의 상징”<sup>65)</sup>이기 때문이었다. “상아탑 속에선 진보적 역할을 하던 문화단체가 정치무대에 나설 때 얼마나 서투르고 보잘것없는 배우이었느냐”며 “선불리 정치를 건드리지 말라”<sup>66)</sup>고 당부한다.

「공맹의 근로관-지식계급론 단편」에서 김동석은 “봉건사회에선 귀족의 식객이 되고 상품사회에선 자본가의 주판”이 된 것이 바로 지식인의 운명이라 일갈한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끼인’ 존재인 지식계급은 “자본가처럼 생산수단이 넉넉한 것도 아니요 노동자처럼 제 손으로 벌어먹을 수 있지도 않기 때문”<sup>67)</sup>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반동 진영에 붙고 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군정의 힘”을 빌려 상아탑을 점령한” 보수 우익진영을 비판하는 글에서 김동석은 우익이 “성대(城大)를 비롯해서 학원의 책임 잇

63) 해방기 김동석이 남긴 주요 작가론의 대체적 경향을 하나만 꼽는다면 각자 자신이 가장 잘 하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임화에게는 시보다 정치에 소질이 있는지 모른다고 자의식을 벗고 아예 현실에 몸을 담고라고 하거나, 유진오에게는 공산주의지연하지 말고 학문(법학)에 집중하라 했으며, 정치용과 오장환에게는 시를 잘 쓰니 걸작을 써 달라고 주문한다. 좌우의 가리지 않고 정곡을 찌러대는 그의 비판이 '능력에 따라 일하라'는 그의 한결같은 입장과 나란히 간다는 점이 흥미롭다.

64) 김동석, 「문화인에게 『상아탑』을 내며」, 『상아탑』 1, 1945.12.10.; 『선집』, 233-235면.

65) 김동석, 『상아탑』, 『상아탑』 4, 1946.1.30.; 『선집』, 243면.

66) 위의 글, 같은 면.

67) 김동석, 「공맹의 근로관-지식계급론 단편」, 『신천지』, 1947.2; 『선집』, 302면.

는 자리를 뺏고 들어앉은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해 무솔리니가 무기고부터 점령했던 일과 일맥상통한다면서 둘 사이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적 해결을 두려워”(68)한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한다. 흥미롭게도 그는 “미국이 자유의 나라”라는 것을 조선학도들이 너무도 잘 알기에 우익이 아무리 “상아탑을 점령한” 채로 진보적 학자를 꺾으려 해도 그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미소 연합국을 향한 기대가 컸던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그가 가장 우려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잔재인 보수주의자들이 학원의 친구 세대교체를 가로막으려는 행태였다. 종교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가 보기에 정당이나 예배당이 그 본연의 역할대로 “현실에서 초연한 ‘상아탑’이 되는 것 자체는 나쁘달 수 없으나 “신부나 목사가 선불리 정치에다 발을 들여놓고서”(69) 신도 대중을 현혹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상아탑에서 정치를 하려는 이들이 학원의 자유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그의 입장은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대학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때도 핵심은 “대학 운영이 미군정청 관리의 고집”이나 “자본가의 사의”(70)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대학은 정치권력이나 자본가의 이익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여기서 엿보인다. 국대안 파동 이후에 발표된 이 글에서 김동석이 주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학 자치의 이념이었다.

대학 자치와 민주주의적 운영에 관한 김동석의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재학했던 경성제국대학의 자치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종욱에 따르면, 경성제대는 “식민사회의 열의가 수반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조선총독부에 의해 만들어진 대학”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조선 민중의 실제 삶과는 별다른 접점을 형성하지 못했다. 1930년대 경성제대 내

68) 위의 글, 236면.

69) 김동석, 「기독교의 정신」, 『상아탑』 7, 1946.6.25.: 『선집』, 256면.

70) 김동석, 「대학의 이념」, 『경상학보』, 1947.10.1.: 『선집』, 319면.

부에서는 일본 제국대학 특유의 학원 문화, 즉 리버럴리즘과 교양주의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부분적으로는 존재했으나, 전시체제가 본격화한 이후로는 이마저도 사라졌다. 해방기에 학원(대학) 문제는 일제 잔재 청산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중요한 것은 제국대학을 경험한 지식인들과 미국 대학 생활 및 기독교계 사립 학교를 경험한 지식인들 간의 대립을 비롯한 각종 충돌이 결국 국대안 파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류하는 핵심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학 자치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다.<sup>71)</sup>

국대안 파동에 관한 김동석의 입장이 왜 반관료주의와 일제 잔재 청산으로 수렴되는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이 물리간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파쇼적, 반과학적, 반인민적 정신은 친일과 민족반역자뿐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는 "관료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버릇"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이지 "미국의 데모크라시"에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님을 강조한다. 자신이 국대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조선의 대학이 "관료의 자의에 맡겨질까 두렵기 때문이며, 따라서 "학자가 아니면서 대학교수가 된 자들의 모략 책동을 경계"<sup>72)</sup>해야 한다고 했다.

위에서 살핀 대로 지식인론에서 김동석이 말하는 우익은 좌익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야탑에서 정치를 하려는 이들이었다. 그는 문학가동맹을 향해서도 문학을 통한 실력 발휘를 주문한다. "문학가동맹은 민족만 생각하다가 문학을 소홀히 한 느낌이 없지 않다"면서 문학가는 다름 아닌 "문학을 통하여" 민족을 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에 응해서 노동"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시인은 시로 소설가는 소설로 평론가는 평론**

71)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정준영의 「식민지 제국대학의 존재방식 - 경성제대와 식민지의 '대학자치론」(『역사문제연구』 26, 역사문제연구소, 2011)을 참고할 것.

72) 김동석, 「학자론」, 『예술과 생활』: 『선집』, 306-308면.

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소탕하고 봉건주의를 청산하고 국수주의를 배격해”<sup>73)</sup>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은 자신의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상아탑을 거절 삼아 지식인과 문화인의 역할, 학문의 자율성, 대학 자치, 언론 자유의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고민하고 글을 썼다. 지성의 존재 이유와 방식을 탐구하면서 김동석은 바로 그런 작업이 “기능에 따라” 일할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의 하나라 여겼을 것이다. 본분에 맞게 능력에 따라 일하되 “간악한 무리에게 지식을 빌려주는 일”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최소 윤리가 김동석 지식인론의 핵심을 이룬다. 그의 이러한 사유가 이를테면 김우창 초기 글에 나타난 비평적 화두와 어떻게 접속하는지 살펴보는 일도 가능할 터인데<sup>74)</sup> 김동석의 해방기 글쓰기를 ‘발굴’하는 작업의 비평사·지성사적 의의는 어쩌면 그런 작은 시도들을 통해 조금씩 찾아질 수 있을지 모른다.

#### 4. ‘토치카’에서 읽는 셰익스피어

널리 알려진 대로 김동석은 「매슈 아놀드 연구」로 경성제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는 셰익스피어를 전공한다. 영문학이 “세포 알알이 배어 있”<sup>75)</sup>다고 할 만큼 김동석은 문학 연구자로서 강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셰익스피어에 관한 그의 애정과 연구열은 여러 글에서 고르게 관찰된다. 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비평집인 『뿌르조아의 인간상』(탐구당서점, 1949)에 실린 논문 「뿌르조아의 인간상-폴스타프론」에는 셰익

---

73) 김동석, 「비판의 비판-청년문학자에게 주는 글」, 『예술과 생활』: 『선집』, 215면.

74) 줄고, 「김우창 초기 비평의 ‘미니마 모랄리아」, 『인문학연구』 34,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75) 김동석, 「나의 영문학관」, 『현대일보』, 1946.4.17.: 『선집』, 342면.

스피어 연구를 경유하여 그가 도달하려던 지점이 다른 아닌 자본주의 비판과 부르주아적 삶의 고발이었음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 김동석이 주목한 것은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헨리 4세』에 등장하는 가공의 희극적 인물 폴스타프(Falstaff)다. 그로테스크한 몸을 지닌 기사로 등장하는 폴스타프는 장차 헨리 5세가 될 왕자 할(Prince Hal)의 친구로서, 방탕과 음주와 폭식을 일삼으면서도 기지 넘치는 언어유희에 능한 “매력적인 인물”<sup>76)</sup>로 평가되곤 한다. 마르크스주의 비평사에서 이 인물이 갖는 중요성은 ‘지킹엔 논쟁’으로 알려진 마르크스·앵겔스-라살레 간 서신 교환에서 비롯되었다. 1859년 라살레가 그의 작품 『프란츠 폰 지킹엔』을 마르크스와 앵겔스에게 보내면서 의견을 구하자, 마르크스는 라살레 비극의 이념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작품이 좀 더 “셰익스피어화”<sup>77)</sup> 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고, 앵겔스 역시 라살레가 “셰익스피어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폴스타프적인 배경”<sup>78)</sup>을 경시했다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해방기 비평사에서 이 폴스타프라는 이 독창적 캐릭터와 셰익스피어 역사극이 주요하게 거론된 것은 김남천과 김동석의 비평문에서다. 먼저 김남천은 10월 항쟁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미학적 고찰을 시도하면서 지킹엔 논쟁을 주요하게 참조하는데 이는 김남천이 지킹엔 논쟁에 관한 루카치의 논문을 이미 읽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눈길을 끈다.<sup>79)</sup>

76)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이 주로 지배층인 왕과 귀족들의 이야기라면, 할 왕자(Prince Hal)의 친구인 허풍선이 술고래 폴스타프는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는 ‘왕과 귀족의 목소리’로 포섭될 수 없는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평가된다. 백승욱·김영아, 「마르크스의 셰익스피어」, 『마르크스주의연구』 18-2,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127면.

77) 막스·앵겔스·라살레 외 지음, 조만영 엮음, 『막스주의 문학예술논쟁-지킹엔 논쟁』, 돌베개, 1989, 39면.

78) 위의 책, 48면.

79) 김남천, 「대중투쟁과 창조적 실천의 문제」, 『문학』 3호, 1947.4: 신형기 엮음, 『해방 3년의 비평문학』, 283~291면. 루카치의 「지킹엔 논쟁과 유물론의 확립」을 읽고 김남천이 10월 항쟁의 비극적 미학화에 대해 고심한 장면을 김윤식도 포착한 바 있다(『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

본고가 주목하는 김동석의 폴스타프론이 흥미로운 것은, 폴스타프라는 인물 유형에 관한 영미 비평계의 주류적 해석을 그가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이 보기에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부정적 인물에게만 ‘산문’으로 말하게 한다. 폴스타프의 대사는 항상 산문이다. 따라서 셰익스피어가 폴스타프에게 기실 애정을 품었지만 일부러 “비겁한 놈처럼”<sup>80)</sup> 그렸다는 모리스 모건(Maurice Morgan)식 해석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계속하여 방탕과 음주와 간음과 폭식과 안일 속에 탐닉”하고 “때로는 강도질까지 하는” 폴스타프를 셰익스피어가 마음속으로 긍정했을 리는 만무하지만 영미 부르주아 비평가들은 폴스타프를 건강하고 용기 있는 부르주아 인간형으로 떠받드는 이해할 수 없는 관점을 취한다.

역사는 **부정의 부정**으로 발전한다. 셰익스피어에 있어서 부정적이던 폴스타프가 그 부정을 부정하여 긍정적인 ‘부르주아의 인간상’이 된 것이 역사의 발전이듯이 오늘날 영미의 부르주아 학자들이 자유의 이상으로 모시어 앉히는 폴스타프지만 그는 **자본주의와 운명을 같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인간**이다. 봉건주의가 역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이 되었을 때 자본주의는-그것은 자유주의라는 간판을 내세웠다-진리와 명예와 법률과 애국심과 용기와 전쟁을 한 몸에 지닌 인간의 가치일 수가 있었다. (...)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자랑할 것은 돈밖에 아무 진리도 진상도 없다. (...) 다시 말하면 이제는 **‘부르주아의 인간상’은 인류의 부정 면을 대표**하는 것으로 전화하였다.<sup>81)</sup>

문학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45~46면).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 이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 검토는 차후 작업으로 미루기로 한다.

80) 김동석, 『부르주아의 인간상-폴스타프론』, 『부르주아의 인간상』, 탐구당서점, 1949: 『전집』, 409면.

81) 위의 글, 426면.

셰익스피어 역사극에 등장하는 가장 독창적 캐릭터로 평가받는 폴스타프에 주목하고, 그에 관한 영미 평단의 해석에 공들여 반론을 제기하는 이러한 학문적 글쓰기가 이 시기 김동석에게는 왜 중요했으며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부르주아 인간은 결국 자본주의의 운명과 함께 소멸해갈 것이라는 선언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남한에 남아 있는 부르주아 지식인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임석제 사진전에 다녀온 후 김동석이 남긴 글에서 일단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썩어가는 역사** 속에서 썩트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며 **암흑 속에서 광명**을 보게 하는 것이 **리얼리즘**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석제 씨의 개인전은 귀중한 시사를 주었다 할 것이다. 즉 **부정적인 남조선 현실** 속에서도 부정하려고 부정할 수 없는 힘이 움트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개인전이 주는 인상이다. 다만 역사를 창조하는 이 힘이 크고 거세게 표현되지 못한 것은 이 이상 **표현할 자유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리라.<sup>82)</sup>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던 1948년 4월 김동석은 설정식이 편집장으로 있던 『서울타임즈』 특파원 자격으로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위의 글들이 발표된 시점은 그가 바란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뒤였다. 그는 일단 ‘남아서 연구하기’라는 싸움의 방식을 택한 듯했다. 폴스타프론을 경유해 그가 수행한 부르주아 인간형 탐구는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 “부정적인 남조선”을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 “기능에 응해서”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결과였을지 모른다. 자본주의와 함께 사라질 운명의 부르주아 지식인으로 스스로를

82) 김동석, 「사진의 예술성-임석제 씨의 개인전을 보고」, 『조선중앙일보』, 1948.8.11.: 『선집』, 329면.

정체화한 김동석이 자본주의 사회에 끝내 남아 세익스피어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은, 상아탑에서 나온 그가 남한 전체를 토치카화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한다. 김동석의 이런 시도는, 김윤식이 일찍이 간파했듯, 다분히 매저키즘적이다.<sup>83)</sup>

## 5. 공존이라는 무너진 꿈

1949년 1월 「민족문학의 새 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김동리와의 대담에서 김동석은 공식주의라는 표현을 우익에게 되돌려주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김동석: 유물사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조선에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문학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덮어놓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왈(曰) 공식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유물사관에 입각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반박만 일삼고 있다. 그들이 도리어 공식주의라고 할까. 어떤 공식 같은 것을 가지고 유물사관을 덮어놓고 욕한다.<sup>84)</sup>

유물사관을 공식주의라 매도하는 이들 자체가 어떤 공식에 입각해 상대방을 덮어놓고 비판하는 공식주의자라는 말이다. 김동석의 이러한 예리한 인식은 마르크스주의를 경제환원론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반박한 테리 이글튼의 논법과 놀랍도록 흡사하다. “경제환원주의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이다.”<sup>85)</sup>

---

83) 김윤식은 김동석 비평에 나타난 “일종의 매저키즘”적 경향을 포착한 바 있다. 김윤식, 『한국 현대문학사-1945-1975-』, 일지사, 1976, 99면.

84) 김동리·김동석 대담, 「민족문학의 새 구상」, 『국제신문』, 1949.1.1.: 『선집』, 481면.

85) 테리 이글튼, 황정아 옮김,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도서출판 길, 2012, 112면.

1949년에도 김동석은 남한에서 김동리와 대담을 하고 책을 냈다. 그는 새해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sup>86)</sup> “정치를 하려고 한다니? 문학에서 정치를 피하지 않는 내가 정치를 하는지, 문학에서 정치를 빼자는 동리 군이 더 정치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sup>87)</sup>”이라고 분노하면서도 그는 계속 읽고 썼다. 김동석이 해방기에 읽고 쓴 모든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지성사적 사건이다. 월북이 사건인 것처럼 말이다. 김동석의 월북 시기는 1949년 말 또는 195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월북 문인’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가 남한에 남아 끝까지 추구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헤아려 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가 꿈꾸었던 것이 혹시 ‘그들’과의 공존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공존은 정희진이 말한바 “극도의 인내와 긴장을 동반하는 신경증적 상황의 지속”은 아니었는지 묻게 된다. 평화학자 정희진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없애겠다는 이들, ‘나’의 죽음을 기도하겠다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겠다는 각오는 **평화가 얼마나 지옥 같은 전쟁 상태와 같은 것인가**를 일깨워준다.”<sup>88)</sup>

전쟁과 평화에 대한 김동석의 밀도 있는 사유와 반전·반파시즘 운동가로서의 그의 실천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전개된 다종다양한 변혁 운동, 즉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이 다름 아닌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의 짧은 시기에 매우 압축적으로 뜨겁게 전개되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다. 김동석의 이론과 실천은 해방기의 이러한 ‘응축된 시간성’을 추체협하게 하는 값진 통로다. “어느 나라에서고 해외

86) “올해는 무엇보다도 ‘나’를 없이하는 데 힘을 쓰리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나라’는 말을 적게 쓰도록이라도 하리라.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걱정은 그러면 이런 수필은 못쓰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벌써부터 소설 쓸 궁리를 하고 있다. 춘원 같은 사이버 소설이 아니라 본격적 소설을 쓰려고 맘먹고 있다.” 김동석, 「나」, 『세계일보』, 1949.1.1.: 구모룡 책임편집, 『예술과 생활(외)-범우비평관한국문학 49 김동석편』, 범우, 2004, 568면.

87) 김동리·김동석 대담, 앞의 글, 477-478면.

88) 정희진, 「내전과 공존」, 『경향신문』, 2025.3.18.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82023015>)

망명객보다 국내혁명가가 더 애국자”<sup>89)</sup>라던 김동석의 신념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사유를 시험하고 도발한다.

---

89) 김동석, 「기독교의 정신」, 『상아탑』 7, 1946.6.25.: 『선집』, 256면.

## | 참고문헌 |

## 1. 기본 자료

- 김동석, 『예술과 생활』, 박문출판사, 1947/1948.  
 \_\_\_\_\_, 『뿌르조아의 인간상』, 탐구당서점, 1949.  
 구모룡 책임편집, 『예술과 생활(외) - 범우비평관한국문학 49 김동석 편』, 범우, 2004.  
 이희환 엮음, 『김동석 비평 선집』, 현대문학, 2010.  
 신형기 엮음, 『해방 3년의 비평문학』, 도서출판 세계, 1988.  
 『해방전후사의 인식』 1-6, 한길사, 1979-1989.

## 2. 단행본

-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1945-1975-』, 일지사, 1976.  
 \_\_\_\_\_, 『한국현대문학비평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_\_\_\_\_,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김재용, 『남북협상과 문인들』, 역사공간, 2024.  
 이양숙, 『한국 근대 문예비평의 논리』, 월인, 2007.  
 이희환, 『김동석과 해방기의 문학』, 역락, 2007.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맑스·엥겔스·라살레 외 지음, 조만영 엮음, 『맑스주의 문학예술논쟁-지킴엔 논쟁』, 돌베개, 1989.  
 칼 맑스, 「고타 강령 초안 비판」(1875), 김세균 감수, 최인호 외 옮김,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박종철출판사, 2007.  
 테리 이글턴, 황정아 옮김,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도서출판 길, 2012.

## 3. 논문 및 기타

- 공임순, 「원자탄의 매개된 세계상과 재지역화의 균열들: 종전과 전후, 한반도 해방(자유)의 조건들」, 『서강인문논총』 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5-43면.  
 김건우, 「김동리의 해방기 평론과 교토학과 철학」, 『민족문학사연구』 37, 민족문학사학회, 2008, 263-290면.  
 김옥동, 「김동석과 사회주의 비평」, 『비평의 변증법』, 이숲, 2022, 99-192면.  
 김윤진, 「해방기 문학과 언어공동체의 구상」, 서울대 박사논문, 2024.  
 김효신, 「한국 근대 좌익 비평문학과 이탈리아 파시즘」, 『이탈리아어문학』 22, 한국이

- 탈리아어문학회, 2007, 57-89면.
- 백승욱·김영아, 「마르크스의 셰익스피어」, 『마르크스주의연구』 18-2,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116-160면.
- 서보혁, 「리영희의 반전반핵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권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121-155면.
- 손유경, 「가두와 서재: 팔봉과 회월의 해방 전후」, 『인문논총』 78-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245-282면.
- 송희복,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 유종호, 「김동석과 토마스 만」, 『내 마음의 땅명지』, 문학동네, 2004, 22-24면.
- 이봉범, 「해방공간의 문화사·일상문화의 실연과 그 의미」,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13-53면.
- 이현식, 「역사 앞에 순수했던 양심적 지식인의 삶과 문학: 김동석론」, 『황해문화』, 1994, 212-234면.
- \_\_\_\_\_, 「김동석 연구 2-순수문학으로부터 민족문학으로의 도경」, 『인천학연구』 2-1, 2003, 341-358면.
- 이혜령, 「해방(기):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2009, 9-50면.
- 임세화, 「탈식민화와 소유 관념의 재현: 해방기 문학의 언어, 경제, 도덕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2023.
- 임종명, 「종전/해방 직후 남조선의 반전 반파쇼 평화운동」, 『기억과 전망』 4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3, 28-76면.
- \_\_\_\_\_, 「종전/해방 직후 남조선과 반파쇼 민주주의, 그리고 인민」, 『역사비평』 146, 역사문제연구소, 2024, 102-134면.
- 장지영, 「해방기 학술의 지정학」, 성균관대 박사논문, 2020.
- 정준영, 「식민지 제국대학의 존재방식 - 경성제대와 식민지의 '대학자치론」, 『역사문제연구』 26, 역사문제연구소, 2011, 9-43면.
- 정희진, 「정박하지 않는 사상가의 삶과 언어」, 『창작과비평』, 2005 가을, 367-370면.
- \_\_\_\_\_, 「내전과 공존」, 『경향신문』, 2025.3.18.
- 조은정,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 국민'의 형성」,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8.
-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55-101면.

<Abstract>

Ivory Towers, Pillboxes, and Kim Dongsuk  
– Intellectual Vignettes from Korea’s Liberation Period,  
1945-1950

Son, Youkyung

This paper aims to reexamine the dynamism and multi-layeredness of Korean intellectua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by interpreting the period not as a “devastated space” but as a moment of “condensed temporality.” Rather than reproducing the entrenched black and white frame that reduces the realities of the liberation period to a binary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left and right, this article offers a close reading of the writings of Kim Dongsuk(1913-?) whose intellectual concerns were characterized by antiwar and anti-fascist thought, reflections on democracy, and an aspiration for peaceful coexistence. Kim’s essays on culture articulate an urgent call to dismantle the remnants of Japanese fascism and militaristic colonial collaborators through the power of culture, which he referred to as “poetic bullets(*Sitan*).” His consistent commitment to anti-war pacifism provided the critical basis for dissecting the pseudo-purism of Kim Dong-ni’s literature theory and exposing the blindness of self-proclaimed patriots of the time. As a Marxist intellectual, Kim anchored his ethical stance in the principle articulated in the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arguing that intellectuals should exercise their capacities from within the “ivory tower.” Kim’s rigor also helps explain his decision to remain in South Korea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government, as he pursued Shakespearean

scholarship as part of his critique of the bourgeois human type. Although Kim Dongsuk is classified as a Northward-crossing writer, what truly matters is recalling what he sought to accomplish by remaining in a South that had been transformed into a vast “pillbox.” Kim did not abandon the seemingly impossible dream of peaceful coexistence, even as left-wing repression intensified under the Syngman Rhee regime and the shadow of war gradually descended over the Korean Peninsula. Kim’s profound reflections on war and peace serve as a reminder that the various revolutionary movements that emerged in South Korea had already unfolded in a highly condensed form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Kim’s writings, as vivid texts that allow us to vicariously experience this condensed temporality of the liberation period, can be newly situated with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modern Korea.

Key words: Kim Dongsuk, liberation period, condensed temporality, anti-fascism, anti-war pacifism, ivory tower, pillbox, Northward-crossing writer, peaceful coexistence, intellectual history

투 고 일: 2025년 8월 17일

심 사 일: 2025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2025년 9월 28일